

원희룡 장관, “ 공공지원민간임대 시공단계부터 거주하는 동안까지 품질 관리 강화”

- 참여 건설사들, 하자 없는 민간임대주택 공급·관리 약속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3일(목) 오후 2시 경기 하남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 전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하자 관리 시 입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주요 건설사에 당부했다.
 -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주택토지공사(LH),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‘하자점검단’을 구성하여 입주 예정 5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단지를 전수조사하였다.
 - 나아가, 이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, 이번 방문단지는 하자 관리방안 발표 이후 방안이 처음 적용되는 현장이다.
 -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입주가 예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도 참석하였다.
- HUG, 공공지원민간임대를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, 입주 예정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“임차인분들은 새 출발의 꿈을 안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다”라며,
 - 시공사에게는 “현장의 부담이 있겠지만 이를 입주민에게 전가 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, 하자처리 과정에서 임차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해달라”라고 요청하였다.
 - 이에 시공사들은 ‘내 가족이 머물 곳이다’라는 생각으로 시공단계부터 거주하는 동안에도 하자 접수·처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

구축될 수 있도록 입주자의 시각에서 하자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.

○ 나아가 원 장관은 민간 및 공공임대 공급주체인 HUG와 LH에 “사업 주체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잘 이행해 달라”고 주문했다.

□ 이어진 입주 예정자들과의 현장점검에서 원 장관은 “단순히 눈에 보이는 하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,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도 큰 노력을 기울여 달라”라며,

○ “하자 없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임차인들의 행복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국토부가 끝까지 관리하고 점검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2023. 2. 23.

국토교통부 대변인